

어려울 때
더 빛나는 이름 *
가족

함께 나누는 사랑

봄호
2020. 05
NO.46
동물보호지

Special
동물의 고통
언제까지 즐길 것인가?

세상 원기
식품에 이용되는 개,
불법 방조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아름다움의 완성은
윤리적 소비

CONTENTS



- 03

세상 읽기

식품에 이용되는 개,
불법 방조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04

입양해주세요

옥상과 보호소가 세상 전부인 줄 아는 노견 ‘꼬마’
- 06

Special

동물의 고통 언제까지 즐길 것인가?
- 12

Special Interview

“지역축제, 지속 가능한 생태적 축제로!”
- 14

현장에서

있을 법한데
- 16

글로벌 뉴스

코로나19, 야생동물의 경고
- 18

함께 나눔

회원,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2020 쓰담쓰담
- 20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아름다움의 완성은 윤리적 소비
〈아워글래스(HOURLASS)〉
- 22

생명에세이

깨끗하고 넓고 그대로인 자연
- 26

견생역전

리카의 사랑 표현 방법
- 28

공존&공감

당신의 마음을 넓혀줄 동물 관련 문화 정보
- 30

활동 소식
- 32

2019 수입지출 보고
- 34

반려동물복지센터 온 포토뉴스

동물보호소에 스무 살 장수견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 35

캠페인 광고

식품에 이용되는 개, 불법 방조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2020년 4월 9일, 대법원은 전기봉을 이용해 개를 도살한 업자에게 유죄라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된 도살업자는 2016년부터 팽팽한 법정 다툼을 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단체는 1심 무죄 판결 직후 총력을 다해 2심에 대응했으나 역시 무죄 판결, 마지막으로 기결 곳은 대법원뿐이었지만 희망을 갖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동물단체들과 변호사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환호했고 다시 힘을 모아 파기환송심에 대응했다. 그 결과 역사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업자는 또 상고해 다시 대법원으로 갔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5년 차에 접어든 인천 전기도살 사건을 마무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에 통영의 한 개 도살장을 폐업시키며 스물한 마리의 누렁이들을 구조했다. 그 도살장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둔기로 개의 머리를 내리쳐 죽이던 곳으로서 지역 주민에 의해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구조하는 날 새벽에 만삭의 누렁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다. 첫 출산일 경우 새끼를 돌보는 본능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누렁이는 이미 여러 번 새끼를 낳아 본 어미였고 이런 행동에 새끼를 돌볼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급히 새끼들을 동물병원으로 옮겼다.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다. 다른 개들이 둔기로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며 새끼를 품은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낳자마자 새끼를 외면하는 선택을 한 어미를 누가 냉혹하다 질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험이 사회적으로 쌓여갈수록 ‘개를 식용으로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시민들의 열망도 높아간다. 개식용 금지는 개고기를 자발적으로 먹을 의향이 전혀 없다는 우리 국민 86.1%(한국갤럽, 2018년)의 내면에서 나오는 요구이다. 개의 지위가 반려동물로 바뀌고 있어서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며 내 감정을 자극하는 동물이기에 그 어떤 개일지라도 감정이입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혹자들은 발끈한다. 당신한테나 반려동물일 뿐이라고. 한데 세상 돌아가는 게 누구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은가. 사회는 변화를 거듭하며 돌아간다. 누가 거꾸로 돌려놓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긴 추위를 지나 만개한 벚꽃을 만끽할 새도 없이 봄이 지나가고 있다. 동물단체 활동가는 봄을 보내는 시점에서 그해 여름을 생각한다. 인천 전기도살 사건의 유죄 확정으로 인해 ‘올여름의 개 도살은 중단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크건만, 현실에선 법이 저 멀리에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도 적용 사례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처벌이 아주 센 금지사항이다.

201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관리해, 이 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원료는 식품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선언했고 이 규정은 현재 유효하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근거하고 제14조(식품 등의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식품 원료는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보존, 진열 등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는 식품 원료 리스트에 없다. 이렇듯 식품공전에 ‘개’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식약처는 이를 어기는 사람이나 업체를 단속하거나 고발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인천 전기도살 사건 판결이 마무리된 이즈음에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요구의 함성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것도 더욱 절실하다.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 / 2020. 봄호

발행처 (사)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20년 05월 07일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정유희

편집 신영배, 박주호 디자인 신재현 교정 박상미 인쇄 순환광고인쇄



www.animals.or.kr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 종이 및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옥상과 보호소가 세상 전부인 줄 아는 노견 ‘꼬마’

글 이민주

2011년 9월 꼬마는 주택 옥상에 방치된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혹독한 한파와 폭염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옥상이 꼬마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의 보호자는 꼬마를 옥상에 그대로 둔 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버려진 꼬마를 잡아먹으려는 동네 노인들에게 끌려가던 중 꼬마는 다른 주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었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동물자유연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올해 나이 12살 추정, 꼬마가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에 머무른 시간은 어느덧 9년입니다. 꼬마는 동물자유연대의 행당동 보호소 시절부터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나이를 먹어왔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 9년이란 시간 동안 새 가족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꼬마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마가 아는 세상은 옥상과 보호소가 전부입니다. 꼬마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훗날 꼬마의 세상이 멈출 때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의 기억이 아닌, 가족의 기억을 안고 떠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옥상과 보호소가 세상 전부인 줄 아는 꼬마가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꼬마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노견의 삶을 품어주실 따뜻한 가족을 기다립니다.



혼혈견 / 12살 추정 / 남 / 5kg가량 / 사람을 잘 따르고 공놀이를 좋아하며 활발함 /
특이사항: 수년 전 다친 항문 부위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동물의 고통 언제까지 즐길 것인가?

글 채일택

국내에서 독자기술로 개발한 고속열차 'KTX-산천'은 그 모양도 이름도 산천어에서 따왔다고 한다. 산천어를 닮은 기차는 강줄기를 해염치듯 선로를 따라 매일 수천 명의 승객을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다. 그러나 정작 KTX-산천의 모델인 산천어는 이런 자유와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 특히 축제라는 지옥을 위해 키워지는 산천어들은 평생을 양식장에서 살다 독으로 막힌 낚시 축제장에 풀어지고, '입질을 좋게 하기 위해' 수일을 굶주림과 싸워야 한다. 굶주림에 지쳐 살기 위해 저승사자와도 같은 미끼를 힘껏 무는 것이다. 어디 산천어뿐인가? 싸움에 끌려 나가는 소도, 자신의 살을 내어주는 고래도 그러하다. 전국의 축제 현장에 동물들의 비명이 가득하다. 동물의 고통이 인간의 즐거움으로 치환되는 축제 이대로 괜찮을까?



우후죽순 동물 이용 축제, 동물들을 괴롭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전국에서 진행된 지역축제만 884개에 달한다. 하루 평균 2.4개의 축제가 전국에서 펼쳐진 셈이다. 축제의 주제도 먹거리부터 인물, 지역의 특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지역마다 축제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축제들을 분류해보니 전국 884개 축제 중 동물을 주제로 하거나 동물을 직접 이용하는 축제는 123개(13.9%)에 달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천명선 교수팀이 2018년 발표한 ‘2013~2015년 동물을 이용한 축제 조사’ 결과치인 86개에 비해서도 절반 가까운 37개가 늘었다. 덩달아 고통받는 동물들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가 대표적이다. 산천어 축제는 세계 4대 겨울 축제 중 하나로 꼽히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5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축제 성공의 이면에는 동물학대

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2020년 축제에만 무려 80만 마리에 달하는 산천어가 현장에 공급되었다. 맑고 수온이 섭씨 20도를 넘지 않는 곳에서 서식하는 산천어는 대부분 동해로 흐르는 영동지방에 서식한다. 그런 산천어들이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축제를 위해 전국 각지 사육장에서 사육되고 이를 공수해 화천천에 가둬두는 셈이다. 이렇게 끌려온 물고기들은 거대한 인공수조에 풀리기 전 굶기는 과정을 거친다. 또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맨손잡기 체험에서는 산천어들이 공기 중에 노출돼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낚시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바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물고기들은 쉽게 상해를 입기도 한다. 3주 정도 진행되는 축제 기간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물고기 역시 부지기수다. 세계적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은 산천어 축제에 대해 “오늘 같은 시대에 여전히 인간의 쾌락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고문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당연시된다는 것은 놀랍고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소싸움대회에 동원되는 소들의 처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경기에 이용되는 소들은 훈련과정부터 학대상황에 놓인다. 뿔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큰 나무를 들이받으며 뿔을 단련시키는가 하면, 근력 강화를 위해 돌 무더기를 담은 타이어를 끌거나 러닝머신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지구력 강화훈련도 병행된다. 차량 이동과 경기장 내에서의 소음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소들은 경기장 입장을 거부하기 일쑤이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코에 걸린 줄을 당겨 소를 억지로 경기장으로 밀어 넣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 중에는 상대편 소와의 충돌이나 날카로운 뿔에 의해 소들이 상해를 입기도 한다.

왜 지역축제는 동물에 집착하나

최근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재작년에는 대통령이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담은 개헌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만큼 동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변했다는 방증이다.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동시에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가 늘어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화성 뱃놀이 축제, 시흥갯골축제,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제천얼음축제, 증평돌노래축제 등 동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축제에서조차 동물을 잡거나 타거나 전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 지역축제들이 주제와 관계없이 동물 이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콘텐츠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애초 상당수의 축제가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치적(治績)을 쌓기 위한 용도로 기획되다 보니 지역의 특성 및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는 등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동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경우 준비가 어렵지



않아 쉽게 도입할 수 있고, 산천어 축제와 같은 흥행모델이 있어 이를 그대로 베낀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천명선 교수팀의 조사결과 동물을 이용하는 129개 프로그램 중 절반 정도인 60개가 산천어 축제의 맨손잡기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또 지역축제의 기획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보다 공무원과 일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되는 과정도 문제다. 치적 쌓기와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환경과 동물보호와 같은 가치들은 뒷전이 되거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간극이 벌어진다. 게다가 한번 만들어진 축제는 되돌리기 어렵고 고착화되며, 그 결과 동물의 고통만 누적된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축제로

동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모두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제7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 생명존중, 생태적 가치를 주제로 출판작 상영뿐 아니라 시민프로그램며 양성과정,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를 이해하는 영화+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생태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특색과 어울리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천명선 교수는 활동유형 및 활동의 복잡성, 동물에게 가해질

수 있는 해(害), 축제 후 동물 처리, 동물의 인지능력을 지표로 각 축제들의 동물 친화성을 평가했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이를 통해 반딧불이 신비탐사(무주), 철새 생태 체험 프로그램(군산), 철새 관련 교육 부스, 탐조 여행(서천) 등이 동물 친화적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영국의 ‘버드페어’는 매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조류 생태계 문제 하나를 주제로 선정하고, 축제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모금한다. 과거 동물학대를 반성하고 새로운 형태로 축제를 변형한 사례도 있다. 벨기에 이프르 지역에서는 종탑에 올라 고양이들을 던지던 풍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고양이 대신 고양이 인형을 던지는 축제로 변화했다. 이 사례들은 동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동물을 주제로 축제를 열 수 있다는 점과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는 현재의 축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는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 대신 생태적이고 교육적인 축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지자체와 정치인들에게 축제를 위한 동물 이용 반대 의사를 명확히 보내는 것이다. 축제의 기획단계에서 생태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도록 민원을 넣을 수 있다. 또 선거에서 위의 내용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다. 우리의 선택들이 많은 축제들을 동물과 인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자.

“지역축제, 지속 가능한 생태적 축제로!”

인터뷰 동물자유연대

지난 1월 9일, 동물권 단체들이 모여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를 생태적 축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산천어 축제는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로 꼽히면서도 동물학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축제”라는 발언을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발언을 취소하는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추진하는 축제들로 동물들의 고통만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이런 축제들을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축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내 동물 이용 축제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천명선 교수와 주설아 연구원을 만나 그 해법을 물었다.



제작년 2013~2015년 전국에서 진행된 동물 이용 축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국내에서 동물 이용 축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동물이 이용되고 있나요?

2013~2015년 전국 지자체에서 매년 진행하는 동물 이용 축제는 86개였어요. 이 축제들의 주요 프로그램 129개를 분석한 결과 84%가 맨손잡기, 낚시 등의 포획, 싸움 관람과 같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 고통을 가하는 활동이었어요. 동물에 해(害)를 가하지 않는 활동은 단 5%에 불과했어요. 축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은 역시 어류인데요, 송어, 빙어, 방어 등 각종 축제에 얼마나 많은 어류가 희생되는지 그 수를 가늠할 수도 없을 지경이에요.

축제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조사에서는 축제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활동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직접적이고 단순한 1차 활동부터 고도의 정신성이 발휘되는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4차 활동까지 분류했는데요, 대부분의 축제가 동물을 먹고 잡아 죽이는 1차원적 활동에 머무를 뿐 교육, 예술 등 미래지향적인 4차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축제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단지 동물을 먹고 잡아 죽이는 활동에 그쳤죠. 자연과 어울리는 활동이 꼭 동물에게 고통을 주어야 하는지,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이 1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조사결과를 보면 ‘동물 친화성’ 점수를 측정한 내용도 있어요. ‘동물 친화성’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동물 친화성은 동물에게 가해질 수 있는 해의 정도, 활동유형 및 활동의 복잡성, 축제 후 동물의 처리, 동물의 인지능력 등 4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활동의 점수를 합산한 것인데요, 84%의 활동이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90점 이상의 활동은 단 5개에 불과했고 모두 동물의 야외서식지에서의 생태관찰 형태였어요. 하지만 부가활동으로 이동 동물 전시, 어류 잡기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축제 전반에 대해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낙제점을 받을 정도면 동물 이용 축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도나 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동물보호법상 어류가 포함되어 있지만 어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죽이는 축제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가족과 아이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축제를 가지 않겠다’라는 시민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사는 경제유발 효과를 중심으로 축제의 성패를 평가하는 지역축제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생태적으로 의미 있는 축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규모는 작더라도 생태적으로 의미 있는 축제를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해당 조사는 단순히 잘못된 축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물의 고통을 알리고, 보다 창의적으로 생태적, 친동물/환경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자는 데 초점이 있어요. 축제의 지속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있을 법한데

글 채일택



아마 이 글이 독자 여러분의 손에 닿을 때쯤이면 21대 총선이 끝난 후일 거라 예상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누가 당선되었는지 그 면면이 궁금합니다.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규칙에 따라 직접 투표는 하지 않지만, 인간에 의해 관리되거나 인간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이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자면 개인적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 어왔기에 과거에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단체에 몸을 담고 보니 동물권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이 너무나도

목마르게 느껴집니다.

‘있을 법한데 없다.’ 우리 단체로 걸려오는 전화 혹은 홈페이지 학대 게시판 등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드는 생각입니다. 제보내용을 보면 분명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확실한데 이를 막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면 인터넷 창을 띄우고 보물찾기를 하듯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과 규정까지 훑습니다. 숨어 있는 관련 조항을 찾아낸다면 다행이지만 이리저리 맞춰 봐도 적용

가능한 조항이 마땅히 없을 때면 죄인이라도 된 심정이 들고는 합니다.

저야 심정에 그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당사자인 동물들의 고통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해마다 늘어 2014년 262명에서 2018년 592명으로 두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유기 유실동물은 지난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13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들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암담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함에도 위안을 삼자면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수많은 법 중 가장 많은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법 중 하나가 동물보호법이라는 점입니다. 동물보호법은 20대 국회에서만 89개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총 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5번의 개정을 통해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영업 관련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자가 관련 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거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실험을 제한하고 동물 유기 행위에 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몇 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학대를 당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임의도살, 버려진 동물을 이용한 영업 관련 규정의 부재, 열악한 전사시설에서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을 강제할 수 없다는 허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현재, 동물단체들의 연대체인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이하 ‘총선연대’)’는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 정

당에 동물복지 정책수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당별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핵심정책인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할 것, △민법상 물건과 구분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로 동물학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공공기관에서의 채식선택권 보장 등 32개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수용요구에 대해 어느 정당에서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는 반면 어느 정당은 회신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아마 독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현명하게 투표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땅의 동물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설 때 우리의 희망과 정치권의 공약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야생동물의 경고

글 박선화, 김솔



코로나19는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한산해졌고 마스크 없이 거리를 다니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역 내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알림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립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현재 수많은 국가로 퍼져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을 선언했습니다. 3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환자 수는 9,661명, 사

망자 수는 158명입니다.

코로나19의 숙주로 특정 동물을 짚어내지는 못했으나 중국 보건당국과 세계 연구진은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이 그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 전파되기 전 중간숙주로 ‘천산갑(유린목 천산갑과에 속하는 포유류)’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모두 야생동물이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동물입니다. 전통 혹은 보양에 좋거나 불치병을 치료

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과 소문에 따라 야생에서 살아가야 할 동물들이 시장과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신종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지카 등의 바이러스는 모두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어떤 방식이든 동물의 영역에 인간이 침투해 동물과 접촉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2012년 발생한 메르스는 박쥐가 낙타에게, 낙타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으며, 2016년 지카 바이러스는 붉은털원숭이가 모기에게, 모기가 다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박쥐와 붉은털원숭이는 이미 바이러스에 적응하고 공존하고 있었지만, 이를 접한 인간이 바이러스에 적응하지 못하고 질환을 앓게 된 것입니다.

자연에서 살아야 하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사례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야생동물카페도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야생동물 카페와 실내 동물원의 동물들은 대부분 검역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수입된 야생동물입니다. 수입 과정에서 5일 동안 계류하고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수입 허가를 취득하기 때문에 수입된 야생동물이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허술한 검역 뒤 야생동물들은 카페로 옮겨져 다수의 시민과 접촉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의 습성을 반영하지 않은 환경에서 벌어지는 인간과의 접촉은 야생동물의 스트레스와 면역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다양한 질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질병 중 일부는 인간에게도 옮겨질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 역시 바이러스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 상태의 철새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적응하고 공존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 농가에서 사육되는 가금류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 빠른 속도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었고, 인간에게도 전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인간

이 동물의 영역을 침범해 감염된 바이러스가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 우한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도시를 떠나면서 약 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집에 방치된 채 남겨졌습니다. 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매개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키우던 반려동물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며 그조차도 약한 양성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라는 주장은 사실로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단 하나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빠른 속도로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런 인간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취식과 거래를 지양하고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존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투병 중인 모든 분의 회복을 기원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사망한 분들을 애도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 슬기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회원,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2020 쓰담쓰담

글 강정미



사업에는 계획과 예산이 필요하고 단체의 연간 사업 계획과 예산은 주로 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의 승인 이후 진행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새해 2월 예산 심의 전에 발생한 위기 동물 구조, 치료 등의 상황에 지원금이 지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의 위기동물은 때를 가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죠.

지난 1월 김혜진 회원님은 출근길에 다리를 저는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백구를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

아보니 고관절 골절이었으며, 병원으로부터 약 200만 원의 치료비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압박붕대로 임시 조치한 후 회원님은 백구의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동물자유연대에 문의했습니다. 당시 2019년 '쓰담쓰담'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었고, 2020년 사업은 시작하기 전이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혜진 회원님은 대형견인 백구의 치료와 돌봄 그리고 입양 의지를 보여주었고, 동물자유연대는 대형견 치료와 입양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기에 백

구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구는 두 차례 다리 수술을 받고 현재 용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김혜진 회원님에게 입양돼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위기동물지원사업 '쓰담쓰담'은 주변의 위기동물 및 유기동물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는 회원님의 위기동물 구조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원 형식과 지원금 비율도 대폭 바뀌었습니다. 먼저 구조 사연을 접수하고 심사통과 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임을 통보받은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치료 뒤 입양한 위기동물에 대한 후기를 보내주셔야 지원이 마무리됩니다. 지원절차가 전보다 복잡해진 것 같지만, 구조 사연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 소중한 후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물자유연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지원금 비율은 일반 시민은 30%, 동물자유연대 후원회원은 50%로 달리해 동물자유연대 후원회원이 구조, 입양하는 경우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치료비의 70%를 지원해 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쓰담쓰담' 위기동물 치료비 지원사업이 시민과 회원 여러분의 위기동물 구조와 치료, 입양에 더욱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주변의 위기동물과 유기동물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1: 친구들과 행복한 용구

용구 2: 용구가 궁금한 친구들

용구 3: 고관절 수술과 중성화 수술 후 회복 중인 용구



아름다움의 완성은 윤리적 소비

<아워글래스(HOURLASS)>

인터뷰·정리 송지성



<아워글래스>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친환경 성분만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색조 화장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 화장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워글래스>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치학대로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에 입소한 상지 & 흑치 형제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아워글래스>는 캠페인을 열고, 베스트셀러 제품 판매 수익 100%를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크루엘티 프리’ 브랜드 <아워글래스> 브랜드팀 정수영 과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드립니다.

*크루엘티 프리: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거나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함께 나누는 삶> 구독자분들에게 <아워글래스>를 소개해주세요.

<아워글래스>는 미국에서 뷰티 스페셜리스트 카리사 제인스(Carisa Janes)에 의해 탄생한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입니다. ‘모던 럭셔리’와 ‘2020년까지 전 제품 100% 비건화’를 모토로 하는 크루엘티 프리 브랜드로, 여성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동물보호에까지 관심을 두는 요즘 시대에 부합하는 브랜드예요. 당연히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3월까지 전세계 면세점에서만 매출 60억 원을 달성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렇게 <아워글래스> 제품이 인기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워글래스>는 2018년 5월에 국내에 런칭했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구매가 늘어나면서 면세점 매출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어요. 특히 작년 2월에 중국의 영향력 있는 왕홍(1인 크리에이터와 비슷한 개념으로 중국 온라인상의 유명인사) 중 한 명이 라이브 영상에서 ‘컨페션 립스틱’을 소개하면서 이 립스틱이 더욱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요?

화장품 개발, 실험 및 생산을 위해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동물이 희생되어왔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전 제품 100% 비건화를 선언한 <아워글래스>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께서 다른 어떤 브랜드를 사용할 때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자부해요.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는 행위를 막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아한 메이크업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크루엘티 프리 화장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동물 실험 없는 화장품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할 텐데요, 전 세계 그리고 국내 관련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나요?

요즘 많은 여성분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도 단순히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제품을 넘어서 동물보호,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하고 있으며 이런 착한 소비의 형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에서 동물 실험

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크루엘티 프리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 같은 분위기는 이미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이 눈에 띄게 커져 많은 기업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개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이런 흐름이 더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단체 협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작년 말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컨페션 립스틱의 수익금 기부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동물들의 수술비 지원이나 보금자리 마련 등의 후원 활동에 동참하고자 해요. 또한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자유연대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캠페인의 진행 기회가 생기길 바라고 있어요. 동물실험을 반대하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크루엘티 프리 브랜드 <아워글래스>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고 넓고 그대로인 자연

글과 사진 전진우(목수)

지난가을 부랴부랴 야영 장비를 샀다. 1kg 조금 넘는 2인용 텐트와 그 절반 무게의 침낭, 땅의 찬 기운을 막아줄 매트 같은 것들. 겨울이 오면 추워서 가기 어려우니까 갈 수 있을 때 몇 번이라도 더 가고 싶어서 한 번에 모두 구매했다. 산을 좋아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적절한 장비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기에 수월했지, 그게 아니었으면 나에게 맞는 물건들을 고르다가 금세 겨울이 와버렸을지도 모른다.

함께 살고 있는 개 완두와 함께 그리고 몇몇 친구들과 시간을 맞춰 산을 오른다. 앞서 말한 장비 말고 의자와 조리 도구, 두 끼 음식들까지 모두 가방에 넣어도 8kg이 넘지 않는다. 가볍게 꾸리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걸을 수 있고 다녀와서의 피로감도 적다. 퇴근 후에 산행을 시작해 한두 시간을 걷고 저녁을 먹은 후 자는 당일의 일정. 다음 날 6시쯤 일어나 장비를 말리며 커피를 한 잔 마신 뒤 가방을 꾸려 하산해 다시 출근하는 식의



캠핑을 친구들 사이에서는 ‘퇴근박’이라고 말한다. 트렁크 가득 짐을 싣고 차로 몇 시간이나 이동하는 캠핑을 다녀본 적 있는 나로서는 요즘의 방식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 집에 도착해 한쪽에 세워둔 배낭을 나중에 산에 가고 싶을 때 그대로 다시 메고 나서면 되는 것이다.

캠핑을 다녀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에는 완두와의 관계도 있었다. 이제 여섯 살이 된 완두는 나와 함께 살기 전까지는 부모님 집에서 지냈다. 매일 산책을 해야 하는데 다들 바빠서 완두가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 얼른 데려와 같이 지내고 싶었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개와 함께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와 근처에 적당한 산책로가 있는 환경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무작정 데려올 수는 없었다. 액자와 작은 가구들을 만들어서 생계를 꾸려보기로 마음먹은 나는 지난 3년간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았다. 완두와 함께 살게 된 지금 집은 그래서 홍제천 바로 앞에, 커다란 기계들을 가구처럼 들여놓은 모습이다.

체력이 넘치는 완두는 매일 두 번씩 산책을 나가도 힘이 남는다. 아무래도 목줄 산책만으로는 쏟아나는 힘을 소진시키기가 어려워 나는 친구와 함께 산에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장비 리스트를 공유해준 친구는 오래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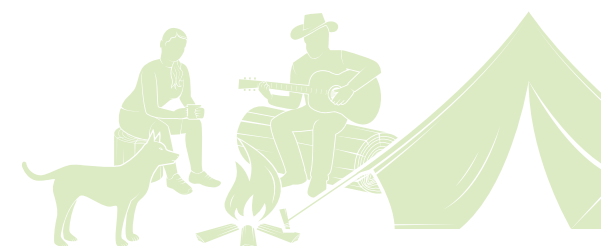
터 함께 사는 개 ‘덴디’와 자주 캠핑을 다녔는데, 나도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천천히 걷는 우리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덴디는 정상에 도착하면 밥을 허겁지겁 먹고서 바닥에 널브러져 쉬었다. 그 만족스러워하는 표정과 숲의 한적함은 개를 키우는 모든 사람이 늘 보고 싶어 하는 풍경일 것이다. 아무튼 나도 이제 친구와 함께 완두를 데리고 한 달에 두세 번 산에 가고 있다. 네 다섯 명의 친구들과 개 두 마리를 회원으로 둔 산악회 이름은 ‘캄캄 산악회.’ 다 늦은 저녁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캄캄은 영어 단어 ‘Calm’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친구는 늘 이름 짓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잘 지어낸다.

가벼운 배낭과 마음 맞는 친구들, 근처의 수많은 산, 완두와 덴디. 산악회는 회비도 일정도 없이 늘 즉흥적으로 잘 모인다. 물 1.5L와 각자 먹을 음식, 그날 깊은 산에서 나눌 이야기 조금이면 된다. ‘리브 노 트레이스 (Leave No Trace).’ 가벼운 짐만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지침은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 것이다.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처음 도착했을 때 모습을 해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저런 의문이 생길 때, 내 경우에는 이곳을 누군가가 방금 막 청소하고 떠난 방이라고 생각해보

곤 한다.

‘창이 넓어서 누워만 있어도 마음이 상쾌해지는 방.’ 그런 곳은 세상에 많지 않아서 한번 와본 사람은 자꾸만 찾게 될 것이다. 개가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바람이 송송 드나드는데도 작은 기계음 하나 들리지 않는 곳. 지난 밤 비가 왔어도 이곳에서는 무엇 하나 눅눅해지거나 눅슬지 않는다. 새소리, 바람 소리, 친구들이 일어나면서 내는 작은 소리들이 들린다. 덴디는 아침마다 여러 개의 텐트에 하나하나 들러서 코로 노크한다. 잘 잤냐고.

산은 천국과는 달라서 누구나 오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흔적 없이 머물렀다면, 다음에 다시 또 올 수 있고, 언제나 처음만큼 좋을 것이다. 산에 오르는 기쁨을 알고부터 나는 완두 몸에 못다 쓴 체력이 남아도, 나의 몸에 불만이나 두려움이 쌓여도 걱정을 덜 한다.



리카의 사랑 표현 방법

정리 <함께 나누는 삶> 편집부
사진 김진수 님



리카는 지난 2015년 11월, 남양주 진접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던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77마리의 개들 중 한 아이였습니다. 그 뒤 리카는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에서 4년이란 긴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 입양이 쉽지 않은 ‘믹스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올해 초, 리카는 김진수 님의 새 가족이 되어 견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리카는 처음엔 낯선 환경 탓인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

했고, 수줍음과 겁이 많은 아이라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기에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이내 진수 님 가족의 진심을 알아차렸는지 자신에게 조심스레 다가온 가족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새 가족의 얼굴을 열심히 훑아 주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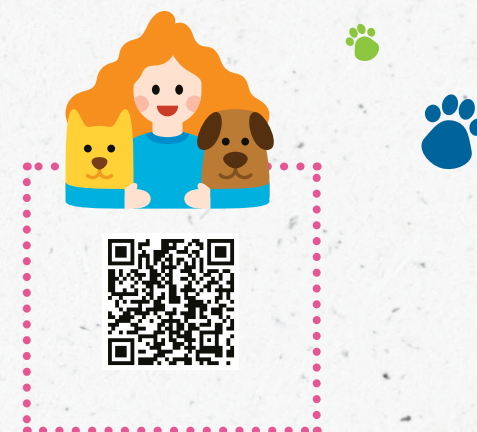
그렇게 진수 님 가족에게 마음의 문을 연 리카. 그 모습에 감동한(?) 진수 님의 가족들은 리카만을 위한 보금자

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새 집을 마련해주었다는 데요, 그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인지 리카가 한동안 자신의 집에 콧 들어박혀 잘 나오지 않아 진수 님 가족들이 조금 섭섭해했다고 하네요. 이런 진수 님 가족의 섭섭함을 금세 알아차린 리카는 집 앞에 깔아둔 이불에 누워 TV를 보며 쉬기도 하고, 햇볕을 좋아해 별이 잘 드는 곳을 찾아다니며 누워 있기도 한다네요. 어쩜 이렇게 가족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진수 님 가족의 멍멍이 리카의 최강 애교 필살기는 바로 얼굴 핥기. 외출 후 들어온 가족에게 꼬리를 ‘뽕뽕’ 돌리며 다가와 반갑게 얼굴을 핥아주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연신 가족들의 얼굴을 핥아준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과한(?) 리카의 애정행각 때문에 리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방어적인 행동인지 가족 모두 의아해하고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리카를 사랑하고 아끼는 진수 님 가족의 마음이 리카에게 고

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겠죠? 진수 님께선 요새 부쩍 리카가 언니(진수 님의 딸)만 따르고 좋아하는 것 같아 샘난다는 이야기도 살짝 전해왔답니다. :)

이제 막 4개월의 시간을 함께한 리카와 진수 님 가족. 앞으로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 더욱 설레고 행복하다는 진수 님 가족과 리카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 당신의 마음을 넓혀줄 동물 관련 문화 정보

고양이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게

음악 <고양이>(Feat. 아이유) 선우정아



‘가장 자신 있는 악기는 목소리’라고 말할 정도로 선우정아 목소리는 남다르다. 재즈, R&B, 일렉트로니카, 어쿠스틱, 가요 등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녀의 목소리는 내게 매번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런 그녀의 곡 중 눈에 띄는 곡을 발견했다. 제목은 <고양이>. 길가에서 길냥이를 만나면 피해 갈 정도로 고양이를 무서워했다는 그녀는 어째서 <고양이>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을까. 이유는 의외로 심플했다. 이 곡에 관한 인터뷰를 보면 우연히 만난 새끼 고양이를 통해 한 번 빠지면 출구가 없는 고양이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 것. 그렇게 고양이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던 선우정아는 ‘사람들도 고양이처럼 뻔뻔하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대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을 때만이라도 사회라는 틀 안에서 눈치 보고 위축된 자의식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이다. 그녀 역시 평소 부끄러워 대중에게 보여주지 못한 귀여움을 이 곡을 통해 한껏 표현했다고 한다. <함께 나누는 삶> 독자도 이 곡을 듣고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당당함과 자유로움을 ‘고양이처럼’ 표현하고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 신영배

비건을 바라보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책 <나의 비거니즘 만화> 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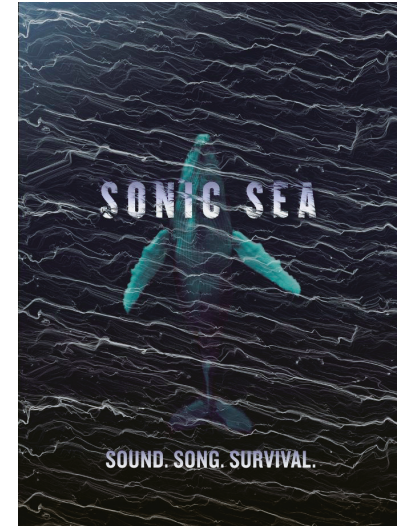


많은 이들이 공장식 사육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막상 비건이란 단어를 보면 ‘완전 채식’만을 떠올리며 실천에 부담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이 책의 작가가 말하듯 비거니즘이란 꼭 채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물 가죽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실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비건의 실천 범위 안에 들듯이 비거니즘이란 다른 종의 착취에 반대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삶의 다양한 방식이자 철학이다. 그 안에는 채식 외에도 동물복지, 환경보호와 같은 수많은 방향성이 함께 존재한다. 작가는 ‘모든 시도는 실천이고 모든 실천은 종착지가 아닌 과정’이라며 불완전한 비거니즘이 많아져 서로가 서로의 비거니즘을 지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당장 완전해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의 비극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는 마음, 나의 생활을 좀 더 건강한 의지로 채워나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도 비건이 될 수 있을까’ 망설이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박주호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큐멘터리 <소닉 씨(Sonic Sea)> 대니얼 하이너펠드 & 미셸 도허티

강한 소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층간 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소음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거나 참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날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소음 테러를 당하는 고래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 고래들은 소리로 바다를 본다. 고래의 귀는 고래의 눈이고 소리는 그들의 언어다. 소리는 해류를 타고 17,000km를 여행한다. 소리로 어미나 무리와 소통하는 고래들은 비약적으로 늘어난 시추선 폭발음, 컨테이너 운반용 화물선과 크루즈 유람선의 프로펠러 회전음에 청각을 고문당하고 귀에 피를 흘리며 죽는다. 고래들은 볼륨을 줄일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다. 전 세계 바닷속에서 소음 폭탄이 터지고 있고 그 소음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고래들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인간 문명의 해악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이 폭력적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생태계의 교란은 가속화될 것이다. 인간의 불가지(不可知)를 깨우쳐주는 영화 <소닉 씨>는 환경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전영석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모순, 지배 그리고 탐욕

책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조너선 사프란 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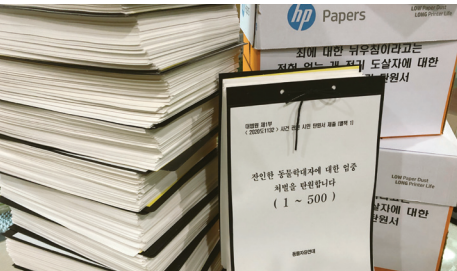
고문당하고 오염된 동물의 살이 우리의 살이 되어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고기를 많이 먹는 시대는 없었다. 자연계에서도 동물이 동물을 먹지만, 파괴적으로 동물을 먹어치우는 동물은 인간 외에는 없다. 단지 고기를 최대한 싸게, 많이 먹기 위해 고안된 오늘날의 ‘공장식 축산’은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환경 파괴에 그 무엇보다도 크게 악영향을 끼치며, 동물들의 면역력을 파괴해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기아에 시달리는 14억 인구를 먹일 수 있는 곡물을 가축들의 먹이로 쏟아붓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육식은 과연 자연스러운 관습인가, 이 시대의 악덕인가.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 책은 프라이드 치킨, 햄버거, 삼겹살 등 우리가 즐겨 먹는 먹을거리들의 숨겨진 진실을 밝힌다. 월간 <Ohboy!>





화천 산천어 축제 중단 촉구

매년 겨울마다 강원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가 열립니다. 오직 인간의 재미를 위해 약 80만 마리 산천어가 제한된 공간에 갇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습니다. 지역 축제라는 이름 아래 마구잡이로 동물학대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알리고 정부와 지자체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산천어 축제뿐 아니라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 축제가 윤리적이고 생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시민 탄원서 제출

2019년 12월 19일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질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은 판결임에도 피고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소했는데요.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는 개 전기 도살자에 대한 엄정 처벌 탄원 서명을 진행, 6천여 명 시민분들이 간절한 바람을 담아 동참해주신 탄원서를 모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응당한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2020 정기총회

2월 22일 토요일, 동물자유연대 서울 본부에서 2020년 정기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조희경 대표의 성회 선포로 시작해 각 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2019년 활동 보고 및 2020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고, 회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활동가들이 직접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소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물학대 대응 /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보고서 발간

2019년 대응했던 동물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범죄의 주요 흐름 및 특징을 분석해 동물학대 예방과 대응, 처벌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를 담은 2019년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전국 222개 지자체 대상 유기동물의 자연사 원인, 입소 검사/치료/건강관리 항목에 대한 동물 관리 현황 조사결과와 7개 지역 11개 보호소 현장 조사 기록을 담은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물학대 없는 사회, 유기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구지역 입원·격리자 반려동물 긴급지원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 등 상황에 처한 반려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구지역 반려동물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구이며 코로나19 확진 환자,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반려인분들께 사료와 입원에 따르는 반려동물 호텔링 비용을 지원해드렸습니다. 대구지역을 응원합니다. 힘내라, 대구!

쓰담쓰담 치료비 지원사업

위기동물과 유기동물을 구조, 치료, 입양하시는 시민 및 동물자유연대 회원 여러분을 위해 3월 12일 쓰담쓰담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여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 치료비 지원 기준이 많이 달라졌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지원 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육곰 콘텐츠 공모전 개최

사육곰 생츄어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육곰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 위한 ‘사육곰이_가다’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작은 사육곰 주간(4월 6일~10일)에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와 SNS 채널 등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잊혀가는 사육곰 문제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물권총선대응연대 동물복지 정책 수용 요구 기자회견

3월 17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동물자유연대와 동물 단체들은 각 정당과 후보들에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안서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농장동물의 감금된 사육 중단 등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아 동물권의 선진적 도약을 구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제21대 총선이 동물보호의 새 출발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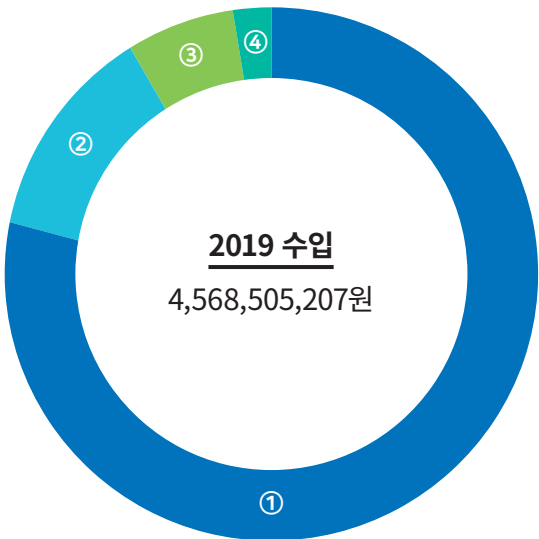
| 2019 수입지출 보고

2019년 수입 내역

구분	금액
공익목적사업수익	4,445,231,878
정기후원회비	3,567,862,079
일반후원금	877,369,799
-현금후원	696,191,683
-물품후원	181,178,116
이자수익	122,438,304
사업외수익	835,025
수입합계	4,568,505,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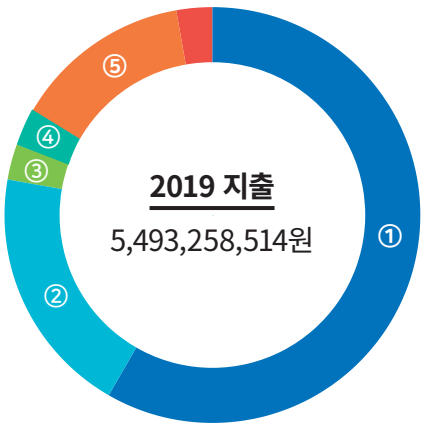
2019년 지출 내역

구분	금액
공익목적사업수익	3,619,779,094
고유목적사업비용	3,067,607,418
-동물구호사업	2,036,208,240
-반려동물사업	298,383,020
-전시&야생동물사업	106,616,547
-농장동물사업	104,334,676
-시민구조지원사업	369,917,007
-교육사업	55,590,021
-기타사업	96,557,907
일반운영비	168,530,671
모금비용	383,641,005
사업외비용	12,049,998
기금적립	750,000,000
-제2보호소건립금	250,000,000
-사무실마련적립	500,000,000
자산비용	1,111,429,422
-온센터3관공사비	846,879,422
-시설장치	164,550,000
-임차보증금	100,000,000
지출합계	5,493,258,514



- 1. 정기후원회비: 3,567,862,079원 (78%)
- 2. 현금후원: 696,191,683원 (15%)
- 3. 물품후원: 181,178,116원 (4%)
- 4. 이자수익: 122,438,304원 (3%)

2019년 동물자유연대 수입은 총 4,568,505,207원입니다. 단체의 든든한 버팀목인 회원님의 정기후원 회비가 3,567,862,079원으로 연수입의 80%를 차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 지원금 0%로 시민의 참여,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물품이나 일시후원(현금후원) 등 일반후원 877,369,799원, 적립된 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122,438,304원이 2019년의 수입을 이루었습니다.



- 1. 공익목적사업비용: 3,619,779,094원 (66%)
- 2. 온센터3관공사비: 846,879,422원 (15%)
- 3. 시설장치: 164,550,000원 (3%)
- 4. 제2보육센터적립: 250,000,000원 (5%)
- 5. 사무실마련적립: 500,000,000원 (9%)

총지출은 5,493,258,514원입니다. 2018년도 총지출(4,047,557,766원)과 비교할 때 지출액이 35% 증가했습니다. 2018년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난 주요 이유는 반려동물복지센터 온의 제3관 공사비로 846,879,422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 선진형 동물보호소인 온 센터에 신규 건설 중인 3관은 예민하게 돌보아야 할 고양이 보호 시설과 센터를 방문한 시민의 교육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공익목적사업비 3,619,779,094원 가운데 고유목적사업비로 3,067,607,418원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2,609,410,873원)과 비교하면 17% 더 동물을 위한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직접적인 학대동물 구조, 치료, 입양 등이 포함되는 동물구호사업(26% 증가)이 전체 고유목적사업비 가운데 66%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동물구호사업비가 2018년도에 비해 늘어난 이유는 구포개시장 폐쇄, 평택 불법번식장 구조 등 대형구조로 인해 구조동물의 외부 위탁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형견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해외입양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역시 2018년보다 확장되었으며 특히 전시동물사업의 경우 2018년 사자 가족 외국 생추어리 구출 시 예산절약(불용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18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운영, 모금 등 단체 전체 행정비용은 552,171,676원으로 공익목적사업비의 15% 정도이며 전체 지출에서는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공익목적사업 및 장기사업을 위한 기금적립을 이어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보호소 시설인 반려동물복지센터 온 외 본부 사무실은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적립된 금액을 포함해 현재까지 적립금은 신규 보호소 건설 적립 1,830,000,000원, 본부 사무실 마련을 위한 적립 1,500,000,000원입니다. 제2보육센터는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단체 주요 사업으로서 연중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비용으로 1,111,429,422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대부분 온 센터 3관 공사비이며 기타 사무공간 시설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온 센터 3관의 경우 구조동물 보호와 입양 등 동물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로서, 완공 후 내부 자산으로 회계 분류되기 때문에 자산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소중한 후원금의 사용을 늘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들께 최대한 자세히 알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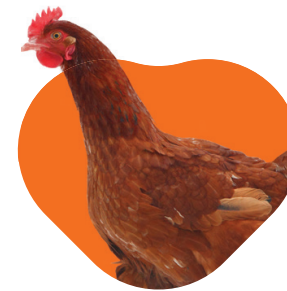
- 1. 동물구호사업: 2,036,208,240원 (66%)
- 2. 반려동물사업: 298,383,020원 (10%)
- 3. 전시&야생동물사업: 106,616,547원 (4%)
- 4. 농장동물사업: 104,334,676원 (3%)
- 5. 시민구조지원사업: 369,917,007원 (12%)
- 6. 교육사업: 55,590,021원 (2%)
- 7. 기타사업: 96,557,907원 (3%)



동물보호소에 스무 살 장수견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글·사진 송영인

단비가 댕댕학교 장수학과 20학번에 입학했습니다! 단비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밝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그란 공만 있다면 어디든 단비에겐 놀이동산이 됩니다. 공 하나로 행복만발한 단비의 모습은 활동가들의 마음에 단비를 내려 무거웠던 마음을 씻어주곤 합니다. 이제 단비의 견생에도 단비가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댕댕학교 장수학과 20학번 단비가 온 센터를 졸업하고, 가족과 마음껏 공놀이하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어서 오길 바라봅니다.



죄 없이 감금된 암탉을 위하여

철장에서 밀집 사육되는 암탉을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달걀 소비 기업에
케이지 프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bit.ly/동물과연대

